



보도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9. 22.(목) 10:00 2022. 9. 22.(목) 석간	배포 일시	2022. 9. 22.(목)
담당 부서	노동정책실 노동현안추진반	책임자	과장 김수진 (044-202-7507)
		담당자	서기관 박완근 (044-202-7519) 사무관 기만철 (044-202-7509)

이정식 장관, MZ세대와 현장소통 행보 강화

- MZ노조 간담회 이어, 블라인드앱 통해 신청한 젊은 직장인과 온라인 소통
- 직장인 85.6% “현재 임금 결정 기준 불공정” ,
60% 이상 “여가, 육아 등으로 근로시간 조정 필요” 하지만 “조정 어렵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9월 22일(목) 오전 간담회에서 MZ세대의 노동현장 상황·애로사항과 함께 그간 노동시장 관행, 임금체계·근로시간 등 제도 개편 필요성 및 방향 등에 대한 MZ세대 노조의 의견을 청취했다.

* (일시·장소) 9.22.(목) 10시, 정동 1928 아트센터 컨퍼런스룸(서울 중구)

일과 삶의 균형, 소통을 중시하고, 공정하고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선호하는 MZ세대는 자신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임금, 근로시간 등 노동 관련 법·제도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장관이 직접 MZ세대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지난주 ‘블라인드앱’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5.6%가 현재 임금 결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고, 여가 및 자기계발(36.9%), 업무량 변동(24.6%) 등으로 근로시간 조정을 희망하지만, 3명 중 2명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는 대다수 직장인들이 임금, 근로시간 제도 등에 대한 변화를 희망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블라인드앱’에 직장인 개별적인 올린 게시글에서

도 “성과와 무관히 보상이 정해져 있어 열심히 일하면 바보가 된 기분에 의욕이 저하된다”, “우리나라는 왜 장시간 근로를 하는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등 현재 노동시장에 대한 아쉬움이 드러났다.

이번 간담회에는 ①LG전자 ②서울교통공사 ③금호타이어, ④LIG넥스원, ⑤네이버 등의 MZ세대 노조 간부 및 조합원 9명이 참석하였고, 참석자들은 각자의 사업장에서 느끼는 노동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했고, 희망하는 노동시장의 모습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식 장관은 오전 간담회에 있어 저녁에도 직장인 대상 ‘온라인 소통회’에 참여하여 직장인들이 느끼는 공정한 보상과 근로시간 선택 등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 직장인들이 바라는 미래 노동시장에 관해 소통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자신이 노동운동을 했던 80, 90년대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30년이 넘게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시장을 둘러싼 경제사회 전반의 산업환경은 크게 변화했지만, 노동법은 과거에 머무르면서, MZ세대들이 노동현장의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더 크게 느낀다고 크게 공감한다면서 간담회 및 온라인 소통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향후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1) MZ세대 노조 간담회 개요

(붙임2) 장관 인사말씀

(붙임3) 간담회 참석 노조 명단

(붙임4) 직장인들이 바라는 일터의 모습(블라인드앱 활용)

(붙임5) 직장인 대상 온라인 소통회 개요

(붙임6) 온라인 소통회 참석자 명단

붙임 1 MZ세대 노조 간담회 개요

◆ MZ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 노동시장 환경이 급변, MZ 세대의 노동현장 상황·애로사항과 함께 그간 노동시장 관행, 임금체계·근로시간 등 제도 개편 필요성 및 방향 등에 대한 MZ세대 노조 의견 청취

* MZ세대(1982~2012년생) 비중은 ①전체인구 대비 36.7%(약 1,800만명),
②경제활동인구 대비 45%(약 1,250만명) <21.2월 기준>

<간담회는 외부 공개로 진행>

□ 일시: 9월 22일(목) 10:00

□ 장소: 정동 1928 아트센터 컨퍼런스룸
(서울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 참석자

- (고용부) 장관, 노사협력정책관, 노동현안추진반장 등
- (노조간부) ①LG전자 ②서울교통공사 ③금호타이어, ④LIG넥스원,
⑤네이버 등의 MZ세대 노조 간부 9명

□ 논의 사항

- ① MZ세대가 체감하는 우리나라 노동현장의 문제
- ② MZ세대가 희망하는 향후 미래 노동시장 모습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오늘 엠지(MZ)세대를 대표하는 노조 여러분들과 함께
바람직한 노동시장의 모습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엠지(MZ)세대는 과거 그 어느 때 보다
일과 삶의 균형, 소통을 더욱 중시하고,
공정하고 자율적인 조직문화를 선호하는 만큼,
임금, 근로시간 등 자신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노동 관련 제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블라인드앱’에서는
“성과와 무관히 보상이 정해져 있어, 열심히 일하면
바보가 된 기분에 의욕이 저하된다” ,
“경력만 쌓이면 승진되는 것은 부당하다” ,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장시간 근로를 하는지” ,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등의
하소연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주 직장인 대상 ‘블라인드앱’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5.6%가 현재 임금결정 기준이 공정하지 않고,
여가 및 자기계발(36.9%), 업무량 변동(26.4%) 등으로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하지만,
3명 중 2명은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없다고 답변하여
현재 노동 관련 제도를 바꿨으면 하는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한평생 노동운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했던 80, 90년대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30년이 넘게 시간이 흐르면서 노동시장을 둘러싼
경제사회 전반의 산업환경은 크게 변화했지만,
현재의 노동법제와 관행은 과거에 뿌리를 두고 현재에
안주하면서 변화하지 않는 경직적인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들이 현재 직장에서 일을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에 대해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어제와 오늘이 아닌 내일의 노동법제 변화와 발전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엠지(MZ)세대 여러분들이
평소에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안고 있는 고민,
희망하는 노동현장의 변화 방향을 함께
아낌없이 말씀해 주신다면,
향후 노동시장 개혁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3**간담회 참석 노조 명단**

연번	노조명	사업장	상급단체	소재지	설립일	조합원수 (신고기준)
1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동조합	LG전자	미가입	서울 영등포	'21.2.25	3,280명
2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	미가입	서울 동작	'21.8.1	716명
3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동조합	금호타이어	미가입	광주 광산	'21.4.2	180명
4	화성노조 LIG넥스원 사무연구직지회	LIG넥스원	민	경기 용인시	-	-
5	화성노조 네이버지회	네이버	민	경기 성남시	-	1,065명

붙임 4

직장인들이 바라는 일터의 모습 (블라인드앱 활용)

1 '블라인드앱' 설문조사

- (개요) '블라인드앱' 이용자 대상, 「직장인들이 바라는 일터의 모습」 설문조사 실시 → 9.13.~18. 6일간, 2,424명 응답
- 설문조사 결과

(Q1) 현재 회사의 임금결정 기준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공정하다	139명	5.73%
②	공정하지 않다	2074명	85.56%
③	잘 모르겠다	211명	8.70%

(Q2) 어떤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되어야 '공정한 보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①	근무년수	381명	15.72%
②	담당업무	608명	25.08%
③	업무성과	841명	34.69%
④	개인역량	594명	24.50%

(Q3) 평소 어떤 이유로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①	육아 등 가족돌봄	582명	24.01%
②	여가 및 자기계발	895명	36.92%
③	업무량 변동	639명	26.36%
④	임금 증가	308명	12.71%

(Q4) Q3과 같은 이유로 근로시간이 조정 필요할 때,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신가요?			
①	조정할 수 있다	809명	33.37%
②	조정할 수 없다	1615명	66.63%

2 '블라인드앱' 주요 직장인 의견

☑ 임금체계 관련 의견

- 호봉제 하에서 언제부턴가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않게 됨
- 일을 성과와 무관히 보상이 정해져 있어, 열심히 하면 바보 같아 의욕이 저하
- 경력만 쌓이면 승진되는 것은 부당하며, 사회가 능력 우선으로 갈 필요
- 문제는 회사에 성과를 측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
- 연봉제는 대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데, 호봉제는 투명하기라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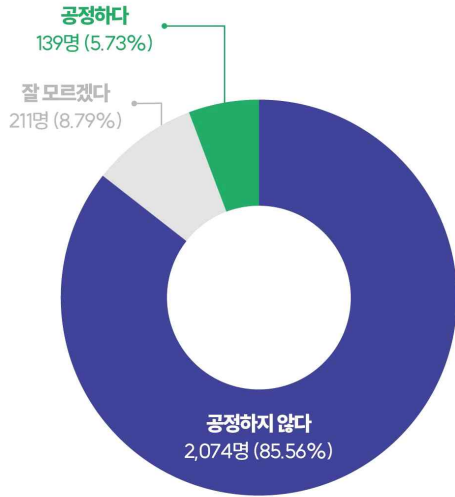
☑ 근로시간 선택권 관련

- 월~화요일에 야근을 많이 하는 경우, 52시간 제한으로 수목금은 "공짜 야근"
- 회사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하는 사람들 어때?
↳ (Re) 좋지 일 있으면 반차 안쓰고 근무시간만 조정해도 되고
- 법적으로 근로의지를 막는 것은 문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뀔 필요
-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일하는게 일상
- 서양 선진국은 4~5시면 다 집에 가는데 우리나라는 왜케 근로시간이 많을까?

3 '블라인드앱' 설문조사 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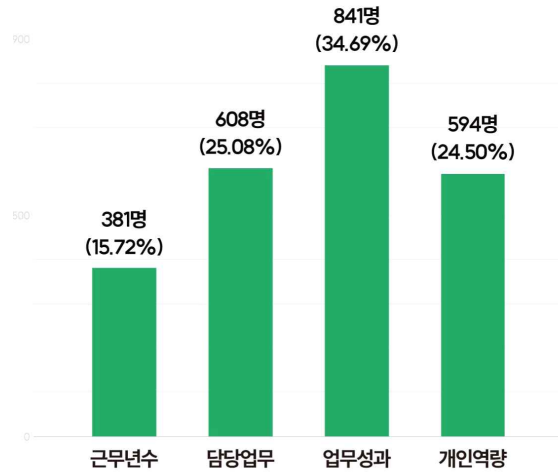
Q1

현재 회사의 임금결정 기준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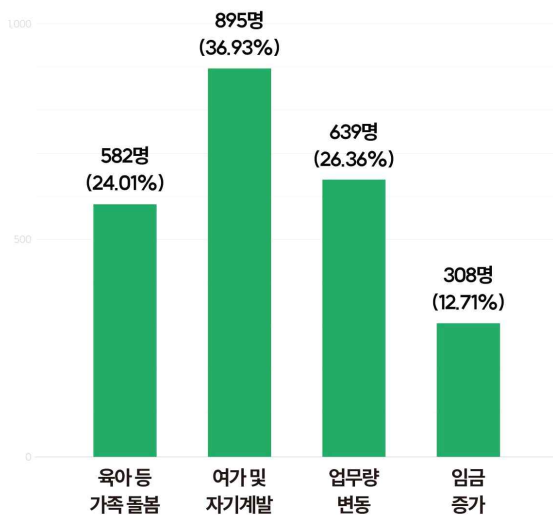
Q2

어떤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되어야
'공정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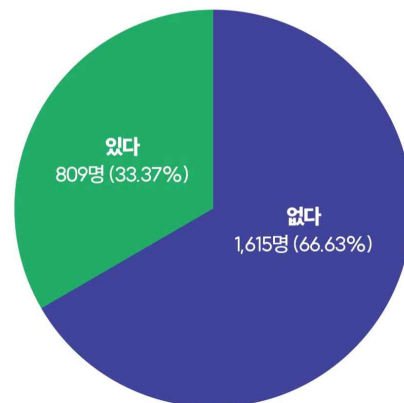
Q3

평소 어떤 이유로 근로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Q4

Q3과 같은 이유로 근로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신가요?



붙임 5**직장인 대상 온라인 소통회 개요**

- (일시) '22.9.22.(목) 20:00 ~ 21:10 (※ 직장인 퇴근시간 고려)
- (장소) △ (On-line) 장관^{ZOOM}, 참가 직장인^{ZOOM} 등
 △ (Off-line) 레포소 스튜디오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29길)
 권순원 교수, 송강직 교수, 아나운서 유수민^{사회}
- (대상) '블라인드앱' 설문(9.13.~9.18.)에 참여한 직장인 15명
 - 설문 종료 후 온라인 소통회 참석을 위한 추가 답변(google form)을 작성한 직장인 중 참석자 무작위 추출
- (주요내용) 디지털 기술 발전 등 변화하는 일터 속에서 직장인들이 느끼는 공정한 보상과 근로시간 선택 등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 직장인들이 바라는 미래 노동시장에 관해 소통 및 개선방향 논의
- **진행일정**

시 간		주요 내용	비고
19:50 ~ 20:00	10'	▸ 스튜디오 세팅 및 참석자 접속상태 확인	-
20:00 ~ 20:04	4'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20:04 ~ 20:07	3'	▸ 소개 및 인사말씀	장관
20:07 ~ 21:07	60'	▸ 자유 소통	사회자·연구회
21:07 ~ 21:10	3'	▸ 행사 종료 및 마무리 인사	권순원 좌장

붙임 6**온라인 소통회 참석자 명단**

연번	직종	연령대	성별	연번	직종	연령대	성별
1	제빵사	20대	여	9	금융사무직	30대	남
2	건설업 시공기술자	20대	남	10	항공군수 생산직	30대	남
3	법무	20대	여	11	식음료판매 영업관리	40대	남
4	구매직	20대	남	12	제조업 사무직	40대	남
5	웹퍼블리셔	30대	남	13	제조업	40대	여
6	의료기기 해외영업	30대	여	14	IT업종	40대	남
7	화학무역	30대	남	15	IT업종	50대	남
8	스타트업	30대	여				